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7 202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25 / 7

|                        |    |                             |
|------------------------|----|-----------------------------|
| 시절 인연                  | 02 |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2 |
| 법정 스님 따라 하기            | 07 | 부모를 공경 공양한 인연 공덕            |
| 법정 스님 편지               | 11 | 편지 잘 받았다.                   |
| 법정 스님 향기               | 14 | 법정 스님이 사랑한 '여행'             |
|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br>선지식 여행 | 16 | 보구중생묘덕普救衆生妙德 주야신            |
|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 19 | 온화한 스님의 얼굴                  |
|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20 |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5년 7월 1일 발행 / 통권 365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2

🌸 **이계진** 산에 있다가 서울 같은 대도시로 오시면 모든 것이 너무 대조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공해 문제도 커서, 산속에 계실 때와 달리 도시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치 않다는 생각도 하실 듯합니다. 이렇듯 대조적이고 오염된 사회에 살다 보니 스님께서 펼치고 계신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 더 관심이 가고 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 맑고 향기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창안하시게 되었는지요?

🌸 **법정** 저도 일 벌이는 건 싫어하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소박한 마음에서 조그맣게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연못에서 연꽃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 다시 연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즉 마음의 연못에 꽃을 피우면 이렇게 삭막하고 황량한 세태를 어르고 달랠 수 있지 않을까, 맑고 향기로운 우리 본래 심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불교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에 이러한 운동이 조용히, 하지만 많은 이들의 동참 속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 **이계진** 저는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간 사회를 위한다는,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운동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다가 흐지부지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또 정치적 목적으로 펼친 운동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겠습시다만,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어떻게 전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법정**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순수한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구호를 내걸었던 여러 운동들이 시작할 때는 뭔가 사회를 바꿀 것처럼 요란을 떨었습니다만, 결국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성미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성향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 대에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시작하고 이어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계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 운동이 진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은 각 개인으로서, 또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소비 문제 등 일반 가정에서 맞닥

뜨리는 고민이 모두 ‘맑고 향기롭게’ 운동의 실천 과제에 속해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갈등을 빚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스님의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법정**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멋대로 한다’ 해서 갈등이 많은데 그것은 어른 기준에서 아이들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입니다. 낯은 관습이나 틀에 빠진 어른들과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는 만원이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아이들 수가 줄었고, 그때부터 과보호가 시작됐어요. 가령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기다리면서 땀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데 부모가 즉석에서 바로 해결해 주니까 아이들 인내심이 줄어들었어요. 참고 견디는 힘이 약해지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좌절하고 도중에 그만둡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육 차원에서 기다리는 힘을 키워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존재입니다. 비록 부모가 낳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등한 존재이므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야 하고, 또 부모 역시 자식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자식은 성장하는데 부모는 제자리에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좋은 자식을 두고 싶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이계진** 현대를 물질만능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하고 보상하려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행복

이 경제력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법정**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청소년 시절 같은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면 책 한 권만 사도, 운동화 한 켤레만 사도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이기도 했잖습니까? 머리맡에 두고는 자다가 만져보고 쳐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 다룰 거예요. 주변에 물건이 넘쳐나고 또 이걸 부모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 주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과연 행복의 척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행복은 필요한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살고 물질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지만 행복 수치를 보면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물질이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 **이계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기 쉬운데,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본질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법정** 그것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며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불가佛家 사람이니 저 자신을 보편적인 예로 들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끔 불필요한

것을 수행하듯 정리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읽지 않는 책을 두 상자 도서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한때는 필요한 것이라 구해 읽은 것이지만 그 필요가 끝나면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게 되고 물질에 깔려 사람 자체가 소멸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기반이 되어 소유하는 것, 그것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신이지 물질이 아니니까요. 가끔 사람들에게 이사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고는 합니다.

이사 갈 때 세간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가기도 하고, 새 공간에 필요하다고 여겨 또 다른 물건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이고 지고 거처를 옮기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자유로워집니다. 몸도 자유로워지지만 무엇보다 정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계기로 생활습관을 바꾼다거나, 소유욕을 버린다는가 하면 이사라는 물리적 이동이 정신적 수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환생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비록 몸 자체는 그대로 금생에 있지만 정신과 마음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생을 시작한 셈이니까요. 이사를 단순히 주거 이동이라고 여기지 말고 뭉치고 쌓인 마음의 먼지를 털고 일어서는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 글은 1996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약수암에서 법정 스님과 이계진 아나운서 대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대담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4회(6월~9월 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 부모를 공경 공양한 인연 공덕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에 계실 때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브라흐마 신을 모시고 싶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라. 브라흐마 신은 곧 그 집에 머물 것이다. 인드라 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인드라 신은 곧 그 집에 머물 것이다. 모든 천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거든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천신은 그 집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만일 성현과 여래에게 공양하고 싶거든 부모를 공양하라. 성현과 여래가 곧 그 집에 머물 것이다.”

비구들은 말했다.

“세존께서는 항상 부모와 노인에게 공경 공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날 이러는 게 아니다. 무수히 지내 온 과거세에도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고 공양했느니라.”

“과거에 공경한 그 일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옛날 바라나시 국에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외아들을 두었다. 그 외아들한테는 많은 자식들이 있어 더욱 가난에 쪼들렸다. 때마침 심한 흉년이 들어 아들은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산 채로 땅속에 묻어 버리고 남은 양식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물었다.

‘요즘 자네 어르신네께서 통 보이질 않는군.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는가?’

아들은 대답했다.

‘부모님은 너무 늙어 곧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므로 얼마 전에 미리 물어 드리고, 그분들이 먹을 양식으로 이 흉년에 아이들이나 먹여 살리려고 했다네.’

다른 이웃집에서도 그 말을 전해 듣고 그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 입 두 입 건너 이 소문이 온 바라나시 국에 퍼지자, 이 일이 그 나라의 법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한 아들이 이 같은 말을 듣고,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분개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써야 이런 악법을 없애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했다. 하루는 그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버님께서는 이웃 나라에 가서 옛 경론을 공부하고 오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이웃 나라에 가서 옛 성인들이 남긴 경론을 배우고 돌아왔다.

아들은 아버지의 나이가 많아지자 은밀히 땅을 파고 조출하게 방을 만들어 그 안에 아버지를 모셔 두고 때에 맞춰 좋은 음식을 올렸다. 그는 늘 생각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나쁜 법을 없애 줄 수 없을까.’ 하고.

이때 그의 앞에 천신이 나타나서 말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 짝이 되어 주겠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시오.’

다음 날 왕궁의 문 앞에는 왕에게 고하는 천신의 글이 붙어 있었다.

바라나시의 왕에게 묻는다. 다음 네 가지 물음에 답하면 왕을 보호하겠지만, 만일 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레 뒤에 왕의 머리를 부수어 일곱 조각을 내리라.

네 가지 물음이란, ‘첫째, 어떤 것이 으뜸가는 재산인가? 둘째, 어떤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가? 셋째, 어떤 맛이 가장 훌륭한가? 넷째, 어떤 것이 가장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이다.

왕은 이와 같은 천신의 물음을 듣고 심기가 몹시 불안했다. 왕은 곧 나라 안에 영을 내려 물었다.

‘이 네 가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무엇이든 다 들어 주리라.’

노인의 아들은 왕 앞에 나아가 그 뜻을 이와 같이 풀이했다.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고, 바른 법이 가장 즐거우며, 진실한 말이 제일 맛이 좋고, 지혜의 수명이 가장 오래갑니다.’

이 답을 듣고 왕은 매우 기뻐했다.

‘이 답은 그대 스스로 알았는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준 것인가?’ 그는 대답했다.

‘저의 늙으신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대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아들은 말했다.

‘원컨대 왕께서는 저의 두려움을 없애 주소서. 저의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므로 땅을 파고 방을 들어 은밀히 모시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지중하기로 말하면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태 안에서 열 달을 안고 있다가 낳아서 마른자리 진자리를 가리면서 기르고, 사람이 되도록 밤낮으로 가르친 은혜로 우리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와 달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

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령,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올려놓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백 년 동안 다니면서 갖가지로 공양해도 은혜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그의 말에 감동하면서 물었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왕께서는 그 악법을 버리도록 해 주소서.’

왕은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그 죄를 엄히 다스리리라.’

이 같은 영을 곧바로 온 나라에 내렸던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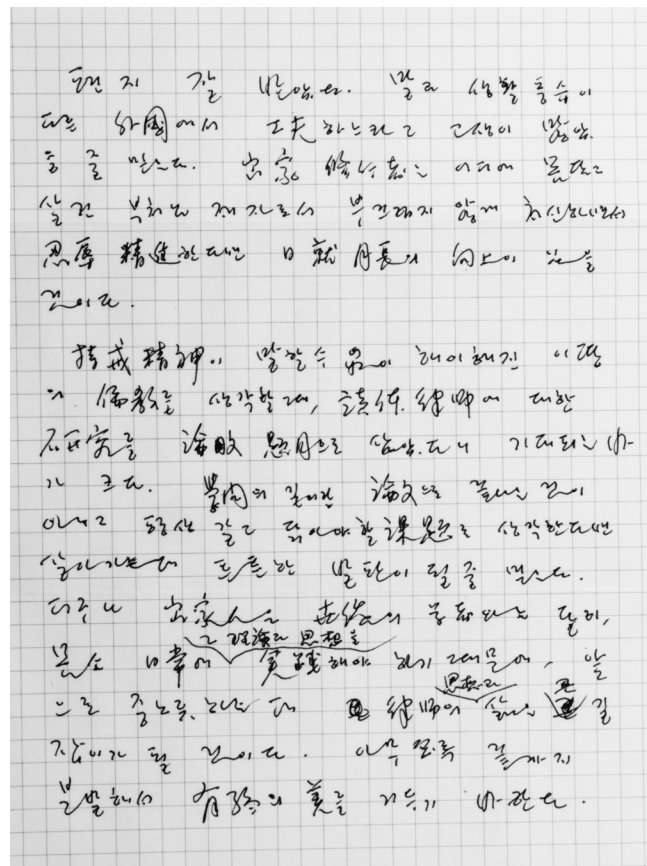
“비구들이여, 알고 싶은가? 그때 그 노인의 아들은 바로 지금의 이 몸이니라. 나는 그 옛날에도 나라의 악법을 없애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이루었네.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오늘도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법을 찬탄하는 것이니라.”

〈잡보장경〉 제2권

### \*법정 스님 강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명 존중뿐 아니라 생명 존중으로 그 뜻이 확산될 때, 인간의 뜻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 3. 법정 스님 편지



편지 잘 받았다.

말과 생활 풍습이 다른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줄 믿는다.

출가 수행자는 어디에 몸담고 살건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면서 인욕정진하면 일취월장할 향상이 있을 것이다.

귀국(歸國) 후의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계가풍(曹溪家風)의 선인(先人)들 본을 받는 것이 덕(德)과 득(得)이 될 줄 안다.

중(中) 된 후로 본사(本寺) 밖에서는 살아보지 않았고 또한 국내(國內)의 제방(諸方)에서 수학(修學)한 바도 없으니, 한 삼년(三年) 제방(諸方)의 선원(禪院)에서 정진(精進)한 다음, 원(願)과 기능(機能)을 따라 앞으로 진로(進路)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顯明)한 길일 것 같다.

요즘 송광사(松廣寺)는 승보도량(僧寶道場)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중(寺中) 분위기도 안 좋아, 나는 들르고 싶지조차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

다시 시절인연(時節因緣)이 오면 도량(道場) 구실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귀국(歸國)하면 다시 중노릇(中노릇) 시작한다는 각오(각오)로 간절(堅決)하게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학업(學業)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안다.

끝까지 분발(奮發)하기 바란다.

지계(持戒) 정신(精神)이 말할 수 없이 해이해진 이 땅의 불교(佛敎)를 생각할 때, 독체율사(讀體律師)에 대한 연구(研究)를 논문(論文) 제목(題目)으로 삼았다니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학문(學問)의 길이란 논문(論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平聲) 같고 닦아야 할 과제(課題)로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데 튼튼한 발판(發판)이 될 줄 믿는다.

더구나 출가인(出家人)은 세속(世俗)의 학자(學者)와는 달리, 몸소

일상(日常)에 그 이론(理論)과 사상(思想)을 실천(實踐)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노릇(中노릇) 하는데 율사(律師)의 사상(思想)과 삶은 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끝까지 분발(奮發)해서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기 바란다.

귀국(歸國) 후의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계가풍(曹溪家風)의 선인(先人)들 본을 받는 것이 덕(德)과 득(得)이 될 줄 안다.

중(中) 된 후로 본사(本寺) 밖에서는 살아보지 않았고 또한 국내(國內)의 제방(諸方)에서 수학(修學)한 바도 없으니, 한 삼년(三年) 제방(諸方)의 선원(禪院)에서 정진(精進)한 다음, 원(願)과 기능(機能)을 따라 앞으로 진로(進路)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顯明)한 길일 것 같다.

요즘 송광사(松廣寺)는 승보도량(僧寶道場)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중(寺中) 분위기도 안 좋아, 나는 들르고 싶지조차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

다시 시절인연(時節因緣)이 오면 도량(道場) 구실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귀국(歸國)하면 다시 중노릇(中노릇) 시작한다는 각오(각오)로 간절(堅決)하게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학업(學業)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안다.

끝까지 분발(奮發)하기 바란다.

94.5.27

강원도 오두막에서

법정(法頂) 합장

## 법정 스님이 사랑한 ‘여행’

스님은 길을 떠날 때면 꼭 방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구질구질한 잔해’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길을 떠나는 것을 ‘이 세상 하직 연습’이라 했습니다. 안거가 끝나고 해제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새벽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나그넷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낄 수 있기에 여행을 ‘자기 정리의 엄숙한 도정’이라 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차마 가볼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리산에 있는 쌍계사 탑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효봉 선사를 모시고 단둘이서 안거했습니다. 소임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탁발을 해오고 필요한 것은 멀리 구례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아득한 시절’이 생각나 차마 가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상무주암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광사를 ‘승보의 가람’으로 만든 분이 지눌 보조 스님입니다. 보조 스님이 송광사에 오기 전에 머문 곳이 바로 지리산 상무주암입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730여 년 전의 옛 자취를 찾아 나섰습니다. 남원에서 점심을 들고 실상사에 들러 산길을 올라 상무주암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한 별밤이었습니다. 봄인데도 높은 곳이라 밤바람이 찼습니다. 스님은 옛 자취를 더듬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득한 ‘고려의 하늘’이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겨울 안거를 마치자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었습니다. 진도 쌍계사 옆에 있는 운림산방을 찾아갔습니다. 쌍계사는 해방 직후 수학여행을 갔다가 하루 묵고 온 인연이 있는 절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그 가을 아침에 안개 속에 묻힌 절을 뒤에 두고 떠나올 때, 어린 소년은 너무나 서운해 뒤돌아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전생에 그 절에 살았기에 그렇게 울었던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찰산 기슭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운림산방에 봄 햇살이 따듯하게 들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성격을 ‘괴팍하고 인정사정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스님을 보고 ‘시퍼런 억새풀 같아서 가까이 가면 베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다녀온 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기준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일암 마루 벽에는 스님이 직접 찍은 안나푸르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석양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안나푸르나는 스님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소로가 호숫가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월든’을 찾아갔습니다. 소로가 지은 〈월든〉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언젠가 인연이 된다면 월든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인연이 닿았습니다. 늦가을 오후 햇살을 받은 맑은 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한번 내 식대로 살아 보기 위해서였다. 즉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인생이 가르치고자 한 것을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해서였다.” 스님이 사랑한 소로의 말입니다.

\* 백형찬 : 서울예술대학 교수 역임, 수필가, 맑고 향기롭게 회원

## 보구중생묘덕普救衆生妙德 주야신

선재동자는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주야신에게서 보희당普喜幢 해탈문을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고 나아가며, 알고 수순하고 생각하고 익혔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모든 감관이 산란하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선지식을 친견하려고 시방으로 두루 찾아 끊임없이 발원했다.

‘항상 가까이 모셔 공덕을 쌓고, 선지식과 더불어 선근이 같고, 선지식의 오묘한 방편행을 얻고, 선지식을 의지해 정진의 바다에 들어가 무량겁을 두고 항상 떠나지 말아지이다.’

이와 같이 원을 세우고,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묘덕妙德 주야신을 찾아갔다. 그 주야신은 선재동자를 위해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의 신통력을 보이고 여러 상호로 그 몸을 장엄했다. 양미간으로 큰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이 지혜 등불 두루 비추는 청정한 깃대[智燈普照清淨幢]이다. 그 광명이 모든 세간을 두루 비춘 뒤 선재동자의 머리로 들어가 온몸에 충만했다.

선재는 그때 구경청정륜삼매究竟清淨輪三昧를 얻고 나서 두 주야신 중간에 있는 모든 지진地塵과 수진水塵과 화진火塵과 금강마니金剛摩尼의 여러 보배 미진微塵 등을 보았고, 낱알 티끌 속에서 불찰佛刹 미진수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보았다. 또 모든 세계의 차별을 보았는데, 어떤 세계는 더럽고 어떤 세계는 깨끗하고, 어떤 세계는 더러운 데로 나아가고 어떤 세계는 깨끗한

데로 나아갔다.

이와 같은 세계의 여러 길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주야신을 보았는데, 그는 그 시기와 장소와 중생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게 가르쳤다.

지옥 중생들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생 중생들은 서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아귀 중생들은 기갈이 없게 하고, 용들은 온갖 두려움을 여의게 하고, 욕계의 중생들은 욕계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밤의 두려움과 악명의 두려움과 살아가기 어려운 두려움과 나쁜 업을 짓게 될 두려움과 여러 생각에 집착해 속박되는 두려움 등을 모두 여의게 했다.

또 모든 중생들, 즉 알에서 나는 것, 태에서 나는 것, 습기에서 나는 것, 변화해서 나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들을 보면 그들 앞에 나타나 항상 부지런히 구호했다. 이는 보살의 대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며, 보살의 삼매력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이며, 보살의 신통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이며, 보현의 행원력을 내기 위해서이며, 보살의 대비大悲의 바다를 더욱 넓히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두루 감싸 주는 걸림 없는 대자大慈를 얻기 위해서이다.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널리 거두어 주는 지혜 방편을 얻기 위해서이며, 보살의 광대한 해탈과 자재한 신통을 얻기 위해서이다.

또 부처님 세계를 맑게 하기 위해서이며, 법을 깨닫기 위해서이며,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기 위해서이며, 온갖 선근을 쌓아 묘행妙行을 닦기 위해서이다. 중생의 마음 바다에 들어가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기질을 알아 가르쳐 성숙시키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신해(信解)를 맑게 해 나쁜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이며, 중생의 무지한 암흑을 깨뜨리기 위해서이며, 일체지(一切智)의 청정한 광명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때 선재동자는 이 주야신의 이와 같은神通력과 불가사의한 깊은 경지에 두루 나타나 중생들을 가르치는 보살의 해탈을 보고 한없이 기뻐했다. 옹드려 절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렀다. 그때 주야신은 곧 보살의 장엄한 모습을 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자재한神通력은 버리지 않았다.

선재동자는 공손히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계승으로 찬탄하고 나서 중생을 널리 구호하는 묘덕 주야신에게 말했다.

“천신이며, 이 해탈은 심히 깊고 희유합니다. 이름은 무엇이며,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되며, 어떤 행을 닦아 청정해졌습니까?”

주야신이 대답했다.

“선남자여, 그것은 알기 어려운 일이다. 하늘이나 인간이나 모든 이승(二乘)들도 헤아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현보살의 행에 머무는 이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비장(大悲藏)에 머무는 이의 경지이며 중생을 구호하는 이의 경지이며 삼악도와 팔난을 정화시킨 이의 경지이며, 부처님의 세계에 불종(佛種)을 계승해 단절시키지 않는 이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또 불법에 머문 이의 경지이며, 끝없는 세월에 보살행을 닦아 큰 서원을 이룬 이의 경지이며, 법계에서 청정한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의 어둠을 없앤 이의 경지이며, 일념의 지혜 광명으로 삼세의 방편을 두루 비추는 이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 선재동자가 보구중생묘덕주야신을 찾아 가르침을 듣는 간절한 구도 이야기는 3회로 나뉘어 계속 이어집니다.

## 6. 스님에게 전하는 이야기

### 온화한 스님의 얼굴

그리운 법정 스님!

스님의 서늘한 뒷모습이 늘 기억납니다.

20대 그 힘들었던 시절을

스님의 법문과 글로 잘 지내왔습니다.

50대에 이르러 새삼

스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여유가 생기니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디, 부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심 속 이러한 공간에서

온화한 스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길상사 진영각 방명록에 남긴 귀한 글을 나눕니다.

##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 중 앙 모 임 (02-741-4696)

####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 가정 46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에 밑반찬 27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 급식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기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급식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만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발식당은 어르신들의 형편에 따라 무료 또는 4,000원을 부담하는데, 매일 8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참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 숲기행 하반기 일정 안내

| 진행일        | 장소                                      | 접수일       |
|------------|-----------------------------------------|-----------|
| 8월 23일(토)  | 강원 인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br>- 점봉산분소 - 곰배령       | 6월 30일(월) |
| 9월 27일(토)  | 충북 괴산 학소대 - 능운대 - 채운암<br>- 우암 송시열 유적    | 9월 1일(월)  |
| 10월 25일(토) | 강원 영월 만봉사 - 싸리재 삼거리<br>- 납석 광업소 - 동전 연못 | 10월 1일(수) |

- **참가비** : 8월~10월 -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접수 및 자세한 설명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대 구 모 임 (053-753-8883)

#### ● 자원봉사자 모집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활동(조리, 준비, 정리 등) / 매주 수요일 오전 9시~14시
- 청도 문운사 정기 봉사활동 / 쌀 지원 받음 / 매월 셋째 월요일 8시 30분 출발 / 10시~14시 봉사활동 / 16시 30분 도착
- 아나바다 장터, 사무보조 등 자원봉사자 모집(하루 2~3시간 의류 정리, 서류 정리 등)

#### ●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아나바다 장터,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대여

#### ● 법정 스님 문화관(5층) 상시 운영

#### ●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무소유기행' 연2회 진행

#### ● 어려운 이웃 반찬, 쌀, 물품 지원 사업

- 홀로어르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저소득 정신장애인, 난치병 환우 가정 지원

#### ●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 어르신 정서 지원 사업 : 경로급식 및 행복치료

#### ● 아나바다 장터 운영 :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 마련,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 기부받음

#### ● 환경지킴이 활동

- 생분해 용품 사용하기, 물티슈 안쓰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

####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 경 남 모 임 (055-266-0170)

#### ● 보헌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 천수다라니 33독송 기도

- 일시 : 7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보름기도

- 일시 : 7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7월 12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 일시 : 7월 18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초하루 기도

- 일시 : 7월 25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일요법회

- 초청법사 : 보만 스님(BBS 불교심리학 강의, 상주 도각사 주지)
- 일시 : 7월 27일(일) 11시
- 장소 : 설법전

### 백중(우란분절) 승보 공양 모연

우란분절 법회는 안거 수행을 마친 대중스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 목갈라나 존자의 효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백중기도 회향일을 맞아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를 천도하고 지옥에서 신음하는 영가들을 구원하는 우란분절 법회를 봉행합니다.

- 일 시 : 9월 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이상 자율보시
- 문의 및 접수 : 02)3672-5945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3-875653 / 길상사

### 생전에수재生前豫修齋

불기 2569년 윤6월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구해스님, 전승교육사 동희스님을 모시고 생전에수재를 봉행합니다.

|    |           |                                                    |
|----|-----------|----------------------------------------------------|
| 4재 | 7월 5일(토)  | * 동참금 : 1인 50만원                                    |
| 5재 | 7월 12일(토) | * 장 소 : 지장전                                        |
| 6재 | 7월 19일(토) | * 49일 매일 기도 (10:50 재, 14:00 기도)                    |
| 막재 | 7월 26일(토) | * 5재 : 대령, 관육, 함합소, 점안                             |
|    |           | * 막재 : 국가 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구해스님, 전승교육사 동희스님 모시고 봉행합니다. |

### 백중 천도재 49재 안내

|    |           |                                                                                                                                                                                                         |
|----|-----------|---------------------------------------------------------------------------------------------------------------------------------------------------------------------------------------------------------|
| 초재 | 7월 25일(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 오전 9시 50분</li> <li>● 장소 : 극락전</li> <li>● 동참금 : 10만원(영가 10위까지, 추가 1위당 5천 원)</li> <li>● 설판 접수 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원 이상 자율보시)</li> </ul> |
| 2재 | 8월 2일(토)  |                                                                                                                                                                                                         |
| 3재 | 8월 9일(토)  |                                                                                                                                                                                                         |
| 4재 | 8월 16일(토) |                                                                                                                                                                                                         |
| 5재 | 8월 23일(토) |                                                                                                                                                                                                         |
| 6재 | 8월 30일(토) |                                                                                                                                                                                                         |
| 막재 | 9월 6일(토)  |                                                                                                                                                                                                         |

### 길상사 50기 불교입문 수강생 모집

- 입재식 : 7월 31일(목)
- 장 소 : 설법전
- 시 간 : 목요일 13:30~15:30
- 자 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인 원 : 정원 80명
- 동참금 : 15만원(교재비 별도)

| 강의      | 일정      | 과목             | 강사   |
|---------|---------|----------------|------|
| 1강      | 7월 31일  | 사찰예절(바른 인사법)   | 주지스님 |
| 2강      | 8월 14일  | 불교란 무엇인가       | 주지스님 |
| 3강      | 8월 21일  | 사찰건축의 이해       | 순원스님 |
| 4강      | 8월 28일  | 불교미술의 이해       | 순원스님 |
| 5강      | 9월 11일  | 기초교리(사성제, 팔정도) | 동욱스님 |
| 6강      | 9월 18일  | 반야심경(색즉시공)     | 남전스님 |
| 7강      | 9월 25일  | 반야심경(공즉시색)     | 남전스님 |
| 8강      | 10월 2일  | 기초교리(중도, 연기법)  | 동욱스님 |
| 9강      | 10월 16일 | 부처님의 생애        | 용희스님 |
| 10강     | 10월 23일 | 부처님의 생애        | 용희스님 |
| 11강     | 10월 30일 | 천수경(기도의 시작)    | 주지스님 |
| 12강     | 11월 6일  | 천수경(다라니의 뜻)    | 주지스님 |
| 11월 11일 |         | 졸업식 및 수계식      |      |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상사

1박 2일 명상 수련

## 하룻밤, 무소유

도심 속 '고요한 숲, 길상사에서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마주하는 깊은 명상의 시간이 열립니다.

목언 수행, 108배 명상, 선 명상, 마당 쓰기, 발우 공양, 스님과의 차담, 1인 텐트에서의 하룻밤까지—

삶의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비움으로 채워지는 여정 속에서 맑은 고요와 자유를 만나보십시오.

**일시** 7. 12토 ~ 13일

7. 19토 ~ 20일

8. 9토 ~ 10일

8. 16토 ~ 17일

첫날 15:00 ~ 둘째날 15:00

**장소** 길상사 설법전

**대상** 수행과 비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비** 7만원

접수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QR코드 스캔)  
인원 50명 (자수별 / 전좌순)  
문의 전화 02-3672-5945  
문자 010-9677-5945  
메일 kilsangsa@hanmail.net

계좌 신한 100-021-136827 길상사

·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TEMPLESTAY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 예시 이미지입니다